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이다.  
(이사 9, 5)

**사랑하는 수녀님들,**

전체 교회와 함께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노래합니다.

마리아처럼 세상의 빛이요, 육화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로부터 은총을 받고 더 받으시다.”

성탄을 축하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아민타 사르멘토 수녀와  
총원 공동체 수녀들 드림

우리창립자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축하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아기예수님은 여러분이 청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직 청할 수 없었을 때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청하지 않은 것도 미리 아시고 주실 것입니다. (AAP 1957, 609)

우리는 아름다운 성소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소를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성소를 항상 더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매일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기다릴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은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AAP 1957, 620)

그분은 우리의 사명 안에서, 거룩함에 대한 성소 안에서, 그리고 말하건데, 우리의 사도직에 대한 사명 안에서 우리의 성소를 확증 해 줄 것입니다.  
(AAP 1957, 61)

빠스또렐레 수녀들에게 성소의 진정한 증거는 수도회에 대한 실질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AAP 1957, 621).